

## 양계복지를 논의하는 시대

먼저 「월간 닭고기」 창간 1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월간 닭고기」는 육계산업의 계열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육계(broiler) → 계육(chicken), 농장(on-farm) → 공장/시장(off-farm), 생산자중심(farmer oriented) → 소비자중심(consumer oriented)의 대전환기에 출발하여 계육산업/협회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필자는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 본 입장이다. 그 동안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인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양계산업은 축산업의 기업화와 경영효율화의 첨병이다. 특히 닭고기 산업은 축산경영의 조직 및 효율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 일반 기업경영의 전략적 핵심인 계열화체계(통합경영, 삼장통합)를 도입, 활용하는 것이다. 소비자 지향적 비용절감, 품질향상, 안정성 제고, 기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육협회와 「월간 닭고기」는 산업의 90% 가까이가 계열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근래에 계육자조금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마치 계열체계가 문제 있는 경영방식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를 보았다. 이는 천편일률적인 자조금법 자체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 이제는 의무자조금체제로 진입했으나 앞으로 기본적인 대책 논의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박영인 이사장  
한국자조금연구원

한국 계육산업은 계열화를 향한 제1차 구조조정(체계개혁) 과정을 거친데 이어 벌써 여러 해 전에 제2차 구조조정(경영개선)을 했어야 한다. 필자는 그렇게 환기시켜 왔다.



“ 선진화국가 만들기에 진력하는 우리나라는 계육의 생산, 유통, 소비에서도 선진국대열에 들어서지 않을 수 없다.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벌써부터 닭고기 소비량이나 품질의 관심단계를 지나 이제는 양계 복지(poultry welfare)를 연구,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EU는 2010년부터 육계 사육밀도를  $m^2$ 당 42kg 이하로 규정하고 닭고기의 복지품질(welfare quality)을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는 등 별의별 일을 다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친 마당에 바야흐로 FTA, 계육전국조직, 자조금사업 등 여러 과제가 한데 겹쳐 앞으로 과연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지 걱정이 없지 않다. 특히 전문화와 통합이 요구되는 이때에 하나의 산업에 여러 생산자 단체가 혼재, 결합 양상인 듯하여 더욱 그렇다.

선진화국가 만들기에 진력하는 우리나라는 계육의 생산, 유통, 소비에서도 선진국대열에 들어서지 않을 수 없다.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벌써부터 닭고기 소비량이나 품질의 관심단계를 지나 이제는 양계 복지(poultry welfare)를 연구,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EU는 2010년부터 육계사육 밀도를  $m^2$ 당 42kg 이하로 규정하고 닭고기의

복지품질(welfare quality)을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는 등 별의별 일을 다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유행에 따라 닭고기를 가리켜 녹색식품(green food), 청결식품(clean food), 안전식품(safe food), 처방식품(ethical food), 복지식품(welfare food)이라 큰소리 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 「월간 닭고기」가 상황적응적인 올바른 역할과 지속적인 생존대책을 잘 세워 나갈 바란다. 창간 당시의 분명한 기능수행과 확실한 비용조달이 부럽던 과거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월간 닭고기」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 